물속의 달과 같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㉚ 무의도인

"어쩌다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활용하는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부처님의 그윽한 뜻(玄旨)을 아는 사람이니라. 부처의 경지에서는 '내가 부처의 경지다' 라고 스스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부처의 경지는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이 경계를 타고 나올 뿐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게 부처를 찾는 길을 묻는다면 나는 곧 청정한 경계로 응대하고 어떤 사람이 내게 보살을 묻는다면 곧 자비의 경계로 응대하며,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묻는다면 곧 깨끗하고 오묘한 경계로 응대하며, 어떤 사람이 열반을 묻는다면 고요한 경계로 응대해 주느니라. 경계는 천차만별이지만 사람은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에 응하여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물속의 달과 같다고 하느니라."

우두법융(牛頭法融, 594~658) 선사가 남긴 말에 "경계를 좇아가는 사람은 하근기(下根機)며 경계를 물리치는 사람이 상근기(上根機)다"고 한 말이 있다. 선 수행을 하는 자가 외부의 바깥경계에 끌려가서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무심해야 도(道)에 합해진다는 무심합도문(無心合道門)을 주장한 우두선의 요지를 설명한 말이다.

이 장에 와서 임제는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경계를 타고 노는 사람이 부처님의 그윽한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무의도인은 부처에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의 경지에서는 내가 부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하였다. "내가 부처다"고 말하면 나는 부처에 의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의도인이 아니다. 생각이 쉬어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지 않는 경지가 의지함이 없는 경지다. 이 경지에서는 무어라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름과 형상으로 말하는 것은 부득이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만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이라 물속의 달과 같다 하였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응용할 뿐 응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무의도인이다.

이 무의도인이 실은 부처님의 참된 법신이다. 금광명경(金光明經) 사구송(四句頌)에 "부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아 사물에 응하여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물속의 달과 같아 아무런 장애가 없다.(佛眞法身 猶如虛空 應物現形 如水中月 無有障礙)"고 하였다.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히고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닫는다(見色明心 聞聲悟道)"는 말이 있다. 보고 듣는 경계가 마음을 밝히고 도를 깨닫게 하는 매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보고 듣는 외부 경계가 깨달음의 계기를 부여해 준다는 말이다. 그런데 범부들은 보고 듣는 경계에 끌려가 분별심을 일으켜 미혹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경계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다. 부설거사의 송(頌)으로 알려진 사구송(四句頌)이 있다.

目無所見無分別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니 분별이 없고

耳聽無聲絶是非 귀로 들어도 소리가 없으니 시비가 끊어지네.

分別是非都放下 분별과 시비를 모두 놓아버리고

但看心佛自歸依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아 스스로 귀의하라.

엄양존자(嚴陽尊者)라는 사람이 있었다. 소문을 들으니 조주(趙州) 선사에게 가서 뭐든지 물으면 "놓아버리게(放下著)" 이 말 한마디를 해준다고 하였다. 그는 조주 선사를 찾아갔다. 그가 물었다.

"아무것도 안 가져온 사람은 무엇을 놓아버립니까?"

그 물음에도 조주 선사는 또 "놓아버리게" 하였다.

엄양이 다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아버리라고 합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게나"

이 말에 엄양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엄양은 물어볼 말을 미리 준비하고 갔던 것이다. 무심이 되지 못하고 유심으로 찾아갔던 것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색'은 곧 실상의 음적 묘유현상

〈實相〉 〈陰的〉 〈妙有現象〉



세상 속 경전읽기

㉚ 묘유현상(妙有現象)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철학자 레우키포스(Leukippos)는, 세상을 '비어있는 공간(Kenon)' 과 이를 채울 '충만한 것[Atom, 원자(原子)]' 으로 나누었다. 아주 작아 더 이상 분할할 수 없으며 단단한 원자는 무수히 많으며, 비어있는 곳을 움직이고 있어, 허공 안에서 일어나는 원자의 재배열로 세상의 다양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의 제자 데모크리토스(Democritos, BC 460? ~ BC 370?)는 원자의 운동과 다원성을 거부하지 않았고, 원자들이 허공에서 모였다 흩어짐을 반복하며 집적하고 여기에서 불, 물, 공기, 흙이 탄생한다고 여겼다. 근대 과학에 있어서는 19세기 초에 돌튼(Dalton)에 의해 원소의 최소 단위로서 원자가 도입되었다.

1803년 영국의 화학자 돌튼이 제안한 원자설은, '1)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작은 입자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2) 같은 원소의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 등 모든 성질이 같고, 다른 종류의 원자는 성질이 서로 다르며, 3)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4)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자들이 간단한 정수비로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는 것이다. 이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원자는 불가분의 것이 아니고,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고, 원자보다 더 작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을 소립자(素粒子)라 하였다. 가장 먼저 발견된 소립자는 전자이고, 뮤온(Muon), 중성미자[Neutrino], 반중성미자[Antineutrino], 쿼크(Quark), 타우온(Tauon), 힉스(Higgs) 등 현재는 약 300여 종의 많은 소립자가 알려져 있고 소립자는 생성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색[色, 물질]의 궁극은 공상(空相)인 원성실(圓成實)의 일상(一相)이고, 색이란 곧 실상(實相)의 음적(陰的) 묘유현상(妙有現象)이라고 한다. 묘유의 극치인 비공비유[非空非有,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님]의 경계를 인허(鄰虛)라 하고, 이는 5안 중 혜안(慧眼)으로 볼 수 있다. 인허의 7배인 궁극적 물질[色究竟]을 극미[極微, paramâṇu]라 하고, 극미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극미는 8사[八事, 地水火風 四大와 6경(境)중 색향미촉(色香味觸) 4경]을 갖추고 있다.

"색취[色聚, 색의 무더기]로서 지극히 세밀한 것을 '극미(極微)' 라고 이름하니, 이는 이보다 더 이상 미세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미취(극미)는 욕계(欲界)에서, 소리[聲]가 없고 근[根, 신근, 안근 등]도 없을 때에는 8사(事)가 함께 생기[俱生]하는데, (8사 가운데) 하나도 멸하는 일이 없다."

〈阿毘達磨俱舍論 T1558_.29.0018b22-24〉

극미의 7배인 미진[微塵, 미(微), aṇu; 대수로 7을 곱하기보다, 공간적으로 중앙 1극미의 상하좌우전후에 각 1극미씩 6극미를 붙인 7극미]은 천안(天眼)으로 볼 수 있다. 7미진인 금진[金塵, loha-rajas]은 금(金) 속을 장애 없이 자유왕래하는 정도로, 수행인의 육안으로 볼 수 있다. 7금진인 수진[水塵, ap-rajas], 그리고 순차로 토모진[兎毛塵, śaśa-rajas], 양모진[羊毛塵,avi-rajas], 우모진[牛毛塵, go-rajas], 극유진[隙遊塵, 일광진(日光塵, vātāyana-cchidra-rajas]으로 7배씩 증가한다. 일광진은 벽틈이나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보이는 부유물(浮遊物)로서 색구경인 극미의 823,543[77]배이다.

이로써 각각의 양을 상상할 수 있으나, 미(微)를 쌓아 작은 데서 큰 것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색온(色蘊)의 소멸하는 정도를 보인 것으로 아공법공(我空法空)을 이루기 위한 석공관[析空觀, 모든 현상을 분석하여 거기에 불변하는 실체가 없으므로 공空이라고 주시함] 수행으로,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을 알아맞힌 후 〈반야심경〉을 꿰뚫어 보도록 한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㊻ 닦음의 길 16

간화, 말머리 본다는 것

〈看話〉 〈話頭〉 〈看〉

오늘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간화선(看話禪)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800년을 이어온 한국불교의 전통이자 근간이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위빠사나, 아나파나사티 등 다양한 수행법의 소개로 그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간화선의 위기라는 말 또한 많이 회자되고 있다. 간화선은 오늘의 한국불교를 있게 한 경허, 만공, 효봉, 구산 등의 선사들을 깨침의 세계로 인도한 수행법이다. 간화선의 전통이 끊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화두를 참구(參究)하는 간화선은 송나라 때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가 개발한 수행법으로 전통적인 붓다의 수행체계와는 성격이나 내용이 많이 다르다. 대혜의 행적을 담은 〈대혜어록(大慧語錄)〉은 흔히 〈서장(書狀)〉이라 불리는데, 지금까지 승가대학이나 강원에서 주요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간화선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인물은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이다. 지눌의 뒤를 이은 진각혜심((眞覺慧諶, 1178~1234)은 이를 더욱 체계화했으며, 지금까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법으로 자리하고 있다.

간화(看話)란 글자 그대로 화두를 보는 것이다. 화두를 공안(公案, formal document)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그 내용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정부의 문서를 가리킨다. 그만큼 공안이 깨침을 이루는 데 공신력을 가진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간화, 즉 말머리(話頭)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는 선사가 하는 말(話)의 핵심(頭)을 곧바로 알아차린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말에 담긴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뜻을 즉각적으로 깨친다는 것이다. 흔히 대화를 할 때 '말꼬리를 잡는다.' 고 하는데, 이는 핵심에서 벗어나 말 자체에 집착하여 따지는 것을 말한다. 화두는 말꼬리를 잡고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말머리를 통해 핵심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수행이다.

간화선은 깨침에 이르는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말 한 마디(言下)에 깨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화두선을 경절문(徑截門), 즉 지름길이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마치 선생님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만 듣고도 곧바로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를 알아채는 것과 같다. 보통 사람들은 쉽게 흉내 내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간화선은 뛰어난 근기의 수행자에게 적합한 수행체계라고 평가한다.

대표적인 선사들의 공안집으로는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의 〈벽암록(碧巖錄)〉이나 무문혜개(無門慧開, 1183~1260)의 〈무문관(無門關)〉 등이 있다. 오늘날까지 1700 공안이 전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자(無字)', '이 뭐꼬?(是什嗎)' 등의 화두가 많이 유행하였다. 특히 무자 화두를 통해 견성에 이른 선사들이 많다. 이 화두는 당나라 말기의 유명한 조주종심(趙州從諗, 778~897) 선사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없다(無)' 라고 답한 데서 유래한다. 스승으로부터 무자 화두를 받은 수행자는 조주 선사가 왜 무(無)라고 했는지 '무, 무, 무' 하면서 끊임없이 참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머리를 타파하고 견성(見性)에 이른다는 것이다. 화두는 전통적으로 배고픈 고양이가 쥐를 쳐다보고 닭이 알을 품듯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간절하지 않으면 화두를 타파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선가(禪家)에서는 동정일여(動靜一如), 몽중일여(夢中一如), 숙면일여(熟眠一如)의 세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견성에 이른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거나 고요히 앉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꿈을 꿀 때와 숙면할 때도 화두가 성성하게 살아있어야 자신의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곧 부처(心卽佛)' 라는 굳건한 믿음과 용맹정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에 좋은 약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별다른 소용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화선이 훌륭한 수행체계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양한 수행법들의 소개로 간화선이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 그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물음을 말머리로 삼아 참구할 때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